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후반기 세례자(입교자 포함)'를 위한 양육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대상자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0월 '성도를 위한 추천도서'가 2층 예향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교회오빠 이관희>,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이상 3권입니다.
4. 이번 주 토요일(10/19) 청소담당은 우즈베크장(유중열 장로)이며, 다음 주일(10/20) 식사 담당은 양떼목장(황희용 권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 맛있는 점心和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즐거운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0월 13일	10월 20일	10월 27일	11월 3일
예배기도(오전)		조정석 집사	유중열 장로	김윤식 장로	권용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박숙이 권사	이연미 권사	목장주일	김금옥 권사
주일식사담당		에스더목장 (오효근 권사)	양떼목장 (황희용 권사)	눔바목장 (유숙정 권사)	헝시바목장 (김금옥 권사)
토요일청소		키르키스탄목장 (10/12)	우즈베크목장 (10/19)	라오스목장 (10/26)	네팔목장 (11/2)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마을(장터, 마트) 전도'를 위해서
2. 2019년도에 세워진 남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 권용기 집사님, 정옥례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사역지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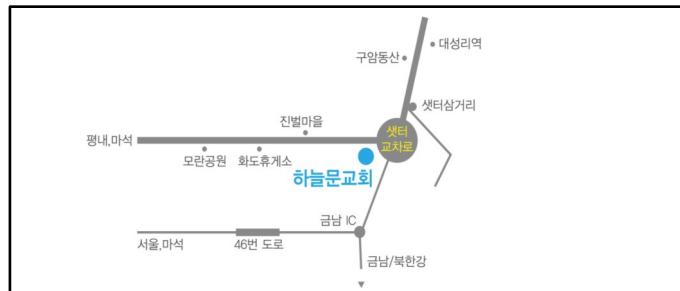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김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는이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성시교독 교독문 72번(이사야 58장 6-11절) 다 갈 이
 *경배찬송 35장(통 50장) 다 갈 이
 *참회기도 다 갈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양과 기도

찬 송 302장 (통 408장) 다 갈 이
 대표 기도 조정석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시 103:1-8 인 도 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 도 자
 말씀선포 '은혜의 본질'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 갈 이
 *결단송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갈 이
 *축 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이다
 시편 33장 2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솔리데오 찬양팀 다 갈 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 갈 이
 찬 송 315장(통 512장) 다 갈 이
 기도 박숙이 권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골 3:15-17 인 도 자
 말씀선포 '감사, 가장 아름다운 말'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교회소식 인 도 자
 찬 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 갈 이
 축 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20:24-31 '믿는 자들의 축복'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관념'(101)

새벽기도회 새벽 5:30 성령강림절후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선택과 집중

교통수단과 인터넷 발달로 물리적인 거리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광활하다. EBS1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하는 <세계 테마기행>이란 TV프로를 보면,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각기 독특한 형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느끼게 된다. 다양성 속에 자신만의 생활방식을 통해 살아야 하는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선택'과 '집중'은 그만큼 중요하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선택과 집중의 기로나 갈등 가운데 서 있다. 그런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명암이 갈리곤 한다. 미처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선택과 집중은 이미 커다란 힘을 발휘하곤 한다. 따라서 꼭 해야 할 일, 해서 즐거운 일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서 의미 있는 열매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집 앞까지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는 '급한 일'보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때 우선해야 할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제자 디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힘써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 그리고 멀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쳤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은 선택의 몫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인의 책임이다. 그리고 피해야 할 일은 죄를 멀리하는 하는 것이다. 악한 것은 생각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이다. 그들은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로, 지혜로운 몇 마디 말이나 몇 시간의 설득으로 결코 돌이키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에 미혹될 뿐이다. 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럴수록 꼭 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을 구별하여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최선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Written by 허영진